



참여연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종배 박상중 한명숙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 723-5300 팩스: 723-5055
전화: PSPD, 나무: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 pspd@nownuri.net / 인터넷 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김기식, 박순철 723-5056)
제 목 2월 24일자 연합통신과 문화일보의 '참여연대, 국민연금 연기주장' 기사는 명백한 오보이다.
날 짜 1999.02.24. (총 1 쪽)

보 도 자 료

2월 24일자 연합통신과 문화일보의 "참여연대, 국민연금 연기주장" 기사는 오보입니다.

1. 오늘(2월 24일) 연합뉴스와 문화일보에 실린 국민연금관련 참여연대의 입장은 명백한 오보이다. 이들 기사에서는 참여연대가 "도시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방안을 마련한 다음 도시자영업자의 확대를 연기할 것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두 언론사 기자로부터 입장표명을 요청받은 바도, 이런 입장을 밝힌 바도 전혀 없다.
2. 참여연대는 내일(2월 25일) 오전 상임집행위원회를 거쳐 국민연금문제에 대한 최종 공식입장을 확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참여연대가 국민연금 실시연기를 주장하고 있다는 위 기사는 모두 오보이며 연합뉴스 기자도 참여연대의 어느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았던 것을 인정하였다.
3. 이제까지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의 확대실시에 대한 선부른 연기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제도의 기본적 원칙과 틀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두 언론사의 오보는 국민연금문제에 대한 그동안 참여연대의 고민과 노력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4. 이에 참여연대는 두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